



창립 72 주년 맞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즐거운 노래소리와 웃음소리 변방에 가득하네!

9월은 천고마비의 계절, 연변은 오곡이 영글어가고 도처에 생기발랄한 기상이 넘친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9.3’ 자치주 창립 연휴 기간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자치주 창립 기념일 맞이 연변 관광’(喜迎州庆·乐游延边) 전민환락시즌 계열 행사를 조직 전개,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을 연변에 불러들여 연변을 느끼고 연변을 사랑하도록 했다.

노래하고 춤추며 자치주 창립일을 맞이하니 즐거운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변방에 가득하네! 9월 3일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2 주년이 되는 날로서 다채로운 문화해민공연과 함께 풍년의 즐거운 노래소리가 농촌 들뜬에서 울려 퍼졌다. 특색이 넘치고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행사는 연변의 매력을 남김없이 발산했다.

연변박물관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연변력사문화진렬’을 새로 내놓았다. 진렬은 주로 ‘중화 문명 동강서광’(中华文明 东疆曙光), ‘산해관 넘고 두만강 건너 삶의 터전 공동건설’(闯关越江 共建家园), ‘피흘리며 어깨 결고 항적’(浴血奋战 共同抗敌), ‘민속문화 이체를 둔구다’(民俗文化 共放异彩), ‘한마음한뜻으로 당을 따라 휘황을 이어나가다’(一心向党 永续辉煌) 등 5대 전시청을 내었는데 통사(通史) 전시와 연변박물관의 기본 진렬을 주요한 전시 방식으로 하면서 문물실물, 사진과 글 전시, 실감적 체험 등 형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시각, 청각, 촉각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참신한 관람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화룡시에서 온 조흔훤학생은 “언녕부터 연변박물관에 오고 싶었어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연변력사문화진렬’ 참관을 통해 연변의 풍부한 력사문화를 더욱 깊이 리해하게 되었고 72년 동안 연변에서 일어난 천지개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연변사람으로서 자부감으로 뿌듯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연변가무단의 대형 창작가무시 〈오색아리랑〉은 소리, 빛, 전기 등 무대예술 요소를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경사스럽고 즐거운 무용, 우아하고 은근한 노래소리와 격양되고 듣기 좋은 선율을 웅장하고 다채



▲ 중국조선족민속원은 독특한 민속풍토, 문화매력과 ‘몰입식’ 놀이 체험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왕홍출처지로 되었다. 민속원에서 ‘공주’로 변신한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운 그림으로 엮여 연변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석류씨처럼 꼭 껴안고 함께 단결분진하는 따스한 화면을 묘사했다. 가무단은 또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여러차례의 ‘플래시몹(快闪)’ 행사를 개최하여 대합창 〈붉은 해 변강 비추네〉 등 다채로운 종목을 공연했다.

밤장막이 드리우고 화려한 등불이 커지자 연결시는 주정무중심 남쪽광장과 부르하통하 강변에서 무인기편대 공연 및 불꽃야회를 거행했다. 7,598 대의 무인기가 밤하늘을 배경으로, 불빛을 화필로 ‘중화를 사랑하네’(爱我中华), ‘화하 거룡이 하늘을 날아예네’(华夏巨龙腾飞亨亨) 등 조형과 글자를 그려냈다. 현장의 멋진 공연은 과학기술감이 넘쳤으며 ‘가장 많은 무인기 공중 그림’ 기네스 기록을 창조했다. 1만 8,000 여발의 꽃탄이 밤하늘을 예쁘게 장식하고 들쭉날쭉한 배합으로 ‘경축의 시각 아름다움 함께하네’, ‘민족단결 백화만발하네’ 등 4개 장을 설계했는데 밤하늘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다웠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분분히 핸드폰을 들고 다채로운 순간을 기록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연휴 기간, 훈춘시 바스토크환락섬주제락원은 더없이 떠들썩했다. 색상이 화려하고 기세가 웅장한 로씨야식 건축물들이 푸른 하늘과 흰구름 아래에서 짙은 이색풍토를 발산하며 많은 관광객들의 왕홍출처지로 되었다.

단선식 톨러코스터를 타고 직진하는 무중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회전목마를 타고 동화왕국의 ‘바비공주’로 ‘변신’하기도, 관람차 최고점에 도달하여 섬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보기도 한다. “바스토크환락섬이 너무 아름다워요. 스틸 넘치는 놀이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다양한 주제의 문예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서 우리 가족은 아주 즐거웠어요.” 돈화시에서 온 관광객 진녀사가 기쁘게 말했다.

독특한 지역 위치와 통상구 통관의 편리한 조건 덕분에 많은 로씨야 관광객들이 훈춘통상구를 거쳐 연변에 와서 관광하고 쇼핑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본다. “이곳 사람들은 친절하고 열정적입니다. 맛있는 음식 또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며 각종 상품도 질이 좋고 값도 싸서 나는 이곳을 매우 좋아합니다.” 로씨야 관광객 카리나는 연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돈화시의 룡정산 주과유원의 날 행사는 짙은 만족 정취가 넘쳤다. 룡정시의 송이버섯 채취 시즌 문화 시리즈는 독특한 조선족 민속과 음식 문화를 느끼게 한다. 왕청현 ‘중국조선족농악무’ 대상경기는 여러 민족의 래왕과 교류의 융합을 증강시켰다… 일련의 문화관광 행사는 연변의 자연경관, 민속풍토, 변경풍경, 특색음식 등 여러가지 우세한 문화관광자원을 전시하여 연변의 민족특색 문화를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연변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자치주 창립 72 주년을 경축하는 열렬하고도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연결공항은 122 대의 비행기가 리착륙하고 려객 물동량은 연인수로 1만 7,780 명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16.2%와 20.1% 성장했다. 연결차무단은 일평균 35.5 쌍의 려객렬차를 운행했는데 도착 려객은 연인수로 14만 5,000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다. 전 주적으로 국내외 관광객 60만명을 접대해 관광 종합수입 6억 5,000 만원을 실현했다.

/ 길림일보

동북범표범국가공원, 자연자원을 ‘호적에 올리다!’

11일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9월 6일,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이 등기를 완성했다. 이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정부가 소유권을 직접 행사하는 국가공원이 자연자원 관리권 확인 등기를 완성했음을 표징한다.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은 길림성과 흑룡강성 두 성의 접경지역인 료야령 남부구역에 위치해있으며 야생동북범, 동북표범의 가장 주요한 활동구역이다. 공원은 야생 동식물자원이 많고 삼림피복률이 높은바 국가 대표성을 띤 자연생태계이다. 국가공원의 관리권 확인 등기를 전개하는 것은 국가공원 건설의 중요하기초성 작업으로서 동북범표범국가공원에 ‘호적을 등록’함으로써 공원의 자연자원 상황과 소유권 상황을 똑똑히 파악하게 되었다.

한편, 등기부에는 주로 세가지 유형의 정보가 기재되어있다.

첫째는 자연 상황이다. 이는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위치, 공간 범위, 면적, 자연자원 유형 등 정보를 포함한다. 등기단원의 총면적은 140만 6,500 헥타르이고 등기단원내의 삼림자원은 137만 2,400 헥타르로 범표범공원 총면적의 97%를 차지한다. 또 수류자원 4,963.36 헥타르, 습지자원 3,643.64 헥타르, 초원자

원 1,707.29 헥타르, 황무지 173.58 헥타르 등 기타 류형의 자원이 있다.

둘째는 소유권 상황이다. 등기부에는 등기단원내 국유와 집단 자연자원 면적이 기재되었는데 등기단원내 국유 자연자원 면적은 134만 3,000 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95%를 차지한다. 국무원의 권한 부여를 거쳐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국유 자연자원 자산소유자의 직책 리행 주체는 자연자원부(국가림조국 포함)이다.

셋째, 기타 관련 사항이다. 레를 들면 등기단원의 부도(附图) 및 등기단원내의 관련 부동산 권리 상황과 ‘3구 3선’ 등 공중관계 정보이다.

자연자원의 권리 확인 등기를 전개하는 것을 통해 등기의 법적 형식으로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자연자원자산을 ‘소유권자가 관리’하도록 명확히 하고 국가공원의 생태보호와 관리책임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지며 국가공원의 재산권 관리에 버팀목을 제공했는데 이는 국가공원의 엄격하고 전체적이며 체계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며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 유리하다.

/ 인민일보

길림성 최장수 나무 연변에, 수령이 근 3천년

우리 성 7만 800 그루 고목 등록

최근, 길림성림업조원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 성에는 포함 7만 800 그루의 고목이 등록되어있는데 그중 1급 고목이 249 그루, 2급 고목이 1,389 그루, 3급 고목이 4만 7,056 그루, 등급을 가리지 않은 고목군이 2만 2,106 그루이다. 그외에 명목이 3 그루 있다. 수령이 가장 긴 고목은 왕청림업유한회사 황구림장의 동북주목(红杉)으로 수령이 근 3,000년에 달한다.

2002년부터 우리 성의 각급 도시건설 및 립업 행정주관부문은 기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포함 두차례의 비교적 큰 규모의 고목명목(古树名木) 전면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전 성 고목명목 자원의 래력을 기본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고목명목 전체 조사 결과에 따라 서류 작성, 공시 확인 등을 마쳤다.

관리보호 책임을 락착하는 면에서 고목명목의 생장지역과 예측관계에 근거하여 보호명부에 오른 고목명목을(군)씩 책임단위와 책임자를 확정했다. 도시지역의 고목명목은 도시건설부문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관광지의 고목명목은 관광지 관리부문이 보호관리를 책임진다. 농촌의 고목명목은 집단경영에 속하는 것은 집단이 관리하고 개인에게 속하는 것은 개인이 관리한다.

현재 우리 성의 고목명목 보호관리에 대한 규정은 주로 관련 법률법규의 구체적인 조항에 나타난다. 이미 출범된 〈길림성목화조례〉등 법률법규는 고목명목의 일상 관리보호, 이전과 벌채에 대해 모두 명확히 규정했다. 고목명목의 분포가 비교적 많은 장춘시, 길림시, 통화시 등 몇개 지역에서는 관리 규정을 출범시켜 본 지역의 고목명목의 보호관리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장백송과 동북주목이 연변지역에 널



리 분포되어있는 실제에 비추어 단독보호구를 설립하고 관련 보호관리 규정을 출범시켜 목적수종이 비교적 잘 보호되었다.

여러 부문에서 조율하고 협력하여 타격행동을 전개함으로써 고목명목 자원과 생태환경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했다. 2022년, 길림성림업조원국은 성공안청, 성주택및도농건설청과 연합으로 길림성에서 고목명목을 파괴하는 위법범죄활동을 타격하는 전문단속행동을 전개했다.

2023년, 3개 부문은 또 연합으로 ‘춘풍 2023’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룡화미화 과정에 고목명목을 불법굴취하는 위법범죄행위와 인터넷 매체를 리용하여 고목명목 및 그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 수매하는 등 위법범죄행위를 중점적으로 타격했다. 올해 또 연합으로 고목명목을 파괴하는 위법범죄활동 타격단속 ‘춘풍 2024’ 전문행동을 전개했는데 현재 행동은 질서있게 진행중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올해 우리 성에서 처음으로 고목명목 구조복원 작업을 전개하여 립업초원계통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19 그루의 1급 고목명목을 구조복원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고목의 자람새와 생장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 길림일보

추석 기간 휴간 통지

길림성우정국과의 발행 계약에 따라 본지 2024년 9월 17일(화요일) 신문은 휴간합니다.

/ 편집부

칠십리 평강벌에서 풍년을 노래하네!

최근, 연길에서 개최된 2024년 ‘축지집’ 전국시랑송경연대회에서 녀성 4중창을 선보여 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아안은 아마추어가수팀 미아그룹(美雅组合)이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칠십리 평강벌에서 풍년을 노래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최순숙, 김경숙, 김옥금, 리순자.)

/ 허철특약기자

